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의사소통에 따른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수치심의 차이*

조인경** · 하정희***

한양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모와 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어떠한 군집이 형성되는지 알아보고, 이 군집들 간에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수치심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및 경상도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23명의 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7부를 제외한 총 316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모와 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특성별로 3개의 군집이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로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수치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라는 특성의 복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와 공존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으며, 부모의 성격과 양육특성이 자녀의 성격적 측면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힘으로써 자녀가 자신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집단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 개입 및 목표를 모색하는 데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대학생, 부모,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치심

논문투고일(2019. 03. 20), 논문심사일(2019. 04. 01), 게재확정일(2019. 05. 01)

* 본 연구는 조인경(2019)의 석사학위논문을 정리한 것임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A02082562)

** 제 1저자: 조인경/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하정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교수/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E-mail: hajung366@hanyang.ac.kr

I. 서론

Adler(1927)가 저서 「인간 본성의 이해」에서 우월(superiority)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동기라고 하였듯이,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열등함을 치부로 간주하고 완벽함을 이상적으로 여기며 개개인에게 보다 더 완벽할 것을 요구한다(이정숙, 조성호, 2011). 완벽함이 개인의 특성이며 능력의 지표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Burns, 1980).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일정 수준의 학업 및 진로를 획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경험하고(서영숙, 김진숙, 2009), 좀 더 나은 일자리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높은 학점, 자격증 취득, 다양한 대외활동 등 각종 스펙을 쌓고자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발표나 취업면접 같이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타인에게 승인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커지며(최상진, 김기범, 2000), 이러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더 유능하고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수 있다.

완벽주의(Perfectionism)란 결함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Flett & Hewitt, 2002). 이러한 완벽주의 성격이 표현적, 대인 관계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라고 한다.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나(Leary & Kowalski, 1995)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타인에게 완벽하게 지각된다고 여기는 행동은 드러내고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된다고 여기는 행동은 은폐하려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하여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타인의 인정과 요구에 민감하며, 과제 수행시 그 과제 자체의 완수에 매진하기 보다는 과도한 준비행동을 한다. 또한 문제 해결적 대처보다 자기비난과 같은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실수한 상황을 왜곡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이동귀, 서해나, 2010). 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지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섭식장애, 성격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적응적 특성(Flett, Mardorsky, Hewitt & Heisel, 2002; Hewitt et al., 2003, Hewitt, Blasberg, Flett, Sherry, Medjuck, Caelian, & Papsdorf, 2007;

Sherry, Hewitt, Flett, Lee-Bagley, & Hall, 2007)과 관련되며, 대학생 시기에 당면하는 자기가치감, 자아정체성 확립 등 성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대학생활 부적응과 대인관계적인 문제 또한 초래할 수 있다(이동귀, 서해나, 2010; Alden, Bieling, & Wallace, 1994; Burns, 1980). 대학생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획득하고 의미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자 자아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권석만, 1995). 대학생의 절반이상이 완벽주의자로 분류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된 한 경험적 연구(Greenspan, 2000)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탐색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세 가지 하위 요인들로 구성된다(Hewitt et al., 2007; Hewitt et al, 2003). 첫째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Promotion, PSP)’으로 자신의 완벽함을 공적으로 드러내 타인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들은 타인에게서 호의적인 평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완벽함을 드러내고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며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측면은 은폐하려고 한다. 둘째로 ‘불완전함 은폐-행동적(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은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불완전함을 숨기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결함이 드러나거나 실수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을 꺼린다. 마지막으로, ‘불완전함 은폐-언어적(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NDC)’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타인 앞에서 인정하거나 말하지 않음으로써 불완전해 보이는 자신의 측면을 은폐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회적 평가에 대해 염려하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하거나 의논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애쓴다(하정희, 201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원으로 쓸 수 있지만, 실제의 자신과 괴리가 크고 지나치게 경직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김남재, 2004; 하정희, 2011; Leary & Allen, 2011; Schlenker & Leary, 1982).

어떠한 심리적 속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그 속성의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관련된 연구는 그 특성이나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결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나 그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는 드물었다(하정희, 2017). 자녀의 완

벽주의적 성격의 형성에 있어서 부모의 완벽주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나(Cook & Kearney, 2014, Frost, Lahart, & Rosenblate, 1990; 1991),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완벽주의의 발달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었고, 부모의 완벽주의가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Hutchinson & Yates, 2008; McArdle & Duda, 2008; Rice, Tucker, & Desmond,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완벽주의가 자녀의 완벽주의에 형성에 기여한다는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형성에 있어서도 부모의 완벽주의 성향이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녀의 완벽주의적 성격에 기여하는 부모요인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태도나 정신병리와 같은 정보를 전달하고 강요하는 방식 및 부모를 향한 자녀의 모델링 등이 있다(Fisak & Grills-Taquechel, 2007). Flett와 Hewitt(2002)의 연구에서도 완벽주의 성격을 부모와 중요한 타인들이 지닌 사회적 기대에 대한 반응으로 묘사하였고, 부모의 불안정한 육아가 자녀의 완벽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자녀가 성장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Stoeber, Otto, & Dalbert, 2009; Cook & Kearney, 2014). 이전 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완벽주의 성격의 형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Clark & Coker, 2009; Cook & Kearney, 2009, 2014; Flett & Hewitt, 2002; Rice, Tucker, & Desmond, 2008), 완벽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형성에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부모는 양육을 통해 자녀와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자녀의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이다(강문희, 2007; 김현주, 2010). 의사소통은 감정, 생각, 태도, 느낌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김경화, 1989)이므로 부모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식으로 대답해주거나 기계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대답, 명령하거나 지시적인 투의 소통방식을 의미한다(Satir, 1983). 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방

어하기 위해 사용한다(정남열, 2007). 완벽주의와 낮은 자존감의 정적 상관을 밝힌 연구들(김현정, 손정락, 2006; 하정희, 2012)을 바탕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부모는 자존감이 낮으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회유형,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회유형은 자신의 가치과 감정을 무시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무조건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유형이다. 비난형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신만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약점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성공했다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의 잘못을 찾고 우월한 듯이 행동하며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평가형은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고 상황만을 중시한다. 이들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방어하기 위해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감정을 무시하고 이성만을 추구한다. 혼란형은 비합리적인 말과 태도를 보이며 대화의 주제가 분명하지 않다. 이들은 자신과 타인, 상황 모두를 무시한다(김옥희, 박미하,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네 가지 하위요인들 중 완벽주의적 사고의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Barrow & Moore, 1983)을 근거로 하여, 완벽주의와 연관이 적다고 판단되는 회유형을 제외한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의 유형만을 사용하여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완벽주의의 발달에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들(Cook & Kearney, 2009; Flett와 Hewitt, 2002)의 결과에 따라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 또한 부모의 영향을 받는지,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그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의 조합에 따라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이외에 어떠한 정서적인 측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완벽주의, 부모양육태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수치심의 연관성을 언급한 바(김태완, 2013; 양선경, 송원영, 2018; 이문선, 이동훈, 2014; 이원경, 2011; 이태영, 심혜숙, 2010; Tangney, 2002),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치심은 자아이상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유발되는 부정적인 평가의 감정으로,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되어있으며 부적절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자아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남기숙,

2008; Tangney, 2002; Wright & Gudjonsson, 2007). 완벽주의가 높은 대학생들은 자기비난이나 수치심이 높고(김정미, 2009; 정해숙, 정남운, 2011), 심리적 부적응, 대인관계문제, 우울 등의 부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서영숙, 김진숙, 2009; Bradshaw, 1988; Wheeler, 2000) 수치심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심의 형성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과 관련이 크다는 연구결과(박윤선, 채규만, 2010; 서영숙, 김진숙, 2007; Bradshaw, 1988; Kaufman, 1989)에 따라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과 자녀의 수치심이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수치심을 내면화한 사람이 고통을 회피하고자 높은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고 실수를 염려하는 완벽주의적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Chang, 2002)는 수치심이 완벽주의적 성격의 형성 경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또한 성장기에 부모로부터의 비난과 무관심을 경험할수록 자녀에게 수치심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Claesson & Sohlberg, 2002)를 통해 볼 때, 자녀의 수치심이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관련이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수치심에 차이를 초래하는 변인이라 가정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두 변인의 수준에 따른 집단과 각 집단이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수치심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녀의 수치심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가. 둘째,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군집들이 형성되는가. 셋째,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조합으로 형성된 군집들 간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녀의 수치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이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수치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그 수준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영향이 작용할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부모의 군집별 양상에 따라 자녀의 성격과 정서적 측면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밝힘으로써 각 군집 유형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상담 개입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과 경기 및 경상도 대구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23부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누락된 7부를 제외하고 총 316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학생 58.5%, 여학생 41.5%였으며, 학년분포는 1학년 11.7%, 2학년 18.4%, 3학년 14.4%, 4학년 53.8%, 기타 .6%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본 연구에서는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를 하정희(2011)가 한국인에 맞게 번안 및 재구성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 8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DP)' 5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DC)' 6문항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형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아버지, 어머니, 자녀 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대상에 맞춰 설문지 문항을 수정하였다. 부, 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신다.',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신다.'와 같이 수정하였다. 하정희(2011)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별 신뢰도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99,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이 .75,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이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아버지 .88, 어머니 .86, 자녀 .88이었고, 하위요인별 신뢰

도는 각각 아버지 .86, .77, .72, 어머니 .85, .75, .70, 자녀 .87, .76, .75으로 나타났다.

2) 역기능적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의사소통 유형 척도는 Satir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이론을 주축으로 한국어에 맞게 제작한 김경화(1989)의 설문지를 이은경(2012)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으로 나누어 수정, 사용한 것을 차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회유형,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의 4차원으로 구분하며 각 차원은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에 해당하는 특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아버지 .93, 어머니 .94이었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아버지 .87, .81, .88, 어머니 .87, .80, .88으로 나타났다.

3)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Cook(1987)이 만든 질문지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 및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수치심을 측정하는 하위요인 네 가지의 24문항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존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반응편향성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에서 가져온 것으로,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을 합하여 측정된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는 '부적절감' 10문항, '공허' 5문항, '자기처벌' 5문항, '실수불안' 4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부적절감 .89, 공허 .86, 자기처벌 .78, 실수불안 .74로 전체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3 하위요인은 각각 .87, .88, .75, .70으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고, 각 척도별 신뢰도 측정을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녀의 수치심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연구문제 1)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서 몇 개의 하위집단이 존재하는지(연구문제 2) 알아보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많은 수의 사례를 선정된 변수를 이용하여 몇 개의 군집으로 집단화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먼저 Wards의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 군집의 수를 정하였고,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최종군집을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나뉜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하위군집들 간 자녀의 수치심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연구문제 3)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전체와 역기능적 의사소통 전체($r=.29, p<.001$),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전체와 수치심 전체($r=.27, p<.001$),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전체와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전체($r=.56, p<.001$)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과 비난형($r=.13\sim.25, p<.05$), 평가형($r=.16\sim.28, p<.05$), 수치심($r=.13\sim.25, p<.05$),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r=.18\sim.59, p<.001$)의 모든 하위변인들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표 1>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N=316)

	1	2	3	전체	4	5	6	전체	7	8	9	전체	10	11	12	13	전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부모	1. 자기노력																
	2. 행동은폐	.51***															
	3. 언어은폐	.44***	.42***														
	전체	.88***	.76***	.74***													
역기능적 의사소통	4. 비난형	.25***	.24***	.13*	.26***												
	5. 평가형	.28***	.27***	.16**	.30***	.83***											
	6. 혼란형	.26***	.21***	.10	.25***	.73***	.74***										
	전체	.28***	.26***	.14*	.29***	.93***	.93***	.89***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녀	7. 자기노력	.59***	.31***	.27***	.52***	.15**	.18***	.15**	.17**								
	8. 행동은폐	.26***	.42***	.29***	.38***	.08	.15**	.05	.12*	.46***							
	9. 언어은폐	.31***	.18***	.43***	.38***	.07	.11	.10	.09	.45***	.32***						
	10. 전체	.52***	.38***	.41***	.56***	.13*	.19***	.13*	.17**	.87***	.70***	.74***					
내면화된 수치심-자녀	11. 부적절감	.25***	.13*	.17**	.24***	.33***	.33***	.41***	.34***	.24***	.19***	.24***	.29***				
	12. 공허	.24***	.13*	.16**	.23***	.39***	.38***	.45***	.40***	.28***	.21***	.12	.27***	.75***			
	13. 자기차별	.22***	.17**	.17**	.24***	.36***	.35***	.38***	.37***	.30***	.25***	.21***	.33***	.78***	.75***		
	14. 실수불안	.16**	.27***	.20***	.25***	.23***	.30***	.27***	.27***	.29***	.52***	.29***	.44***	.56***	.51***	.55***	
전체	.26***	.17**	.19***	.27***	.38***	.38***	.45***	.40***	.30***	.28***	.23***	.35***	.94***	.88***	.89***	.68***	
M	3.70	4.34	3.99	3.96	2.02	2.20	1.84	2.11	3.90	4.85	3.98	4.18	2.08	2.19	2.18	3.14	2.18
SD	.92	.90	.81	.71	.76	.70	.72	.70	1.01	.96	.96	.78	.68	.90	.72	.75	.62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전체와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r=.17, p<.01$)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변인별 상관관계는 차이가 있었다. 비난형은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유의미한 상관($r=.15, p<.01$)을 보였으나,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r=.08$),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r=.07$)과는 관련이 없었다. 평가형은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노력($r=.18, p<.001$),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r=.15, p<.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r=.11$)과는 관련이 없었다. 혼란형은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유의미한 상관($r=.15, p<.01$)을 보였으나,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r=.05$),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r=.10$)과는 관련이 없었다.

한편,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전체와 수치심 전체($r=.40, p<.001$)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세 하위변인과 수치심의 네 하위변인들 모두 유의미한 상관($r=.23\sim.45, p<.001$)을 보였다.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전체와 수치심 전체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r=.35,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하위변인들과 수치심의 네 가지 하위요인들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r=.12\sim.52,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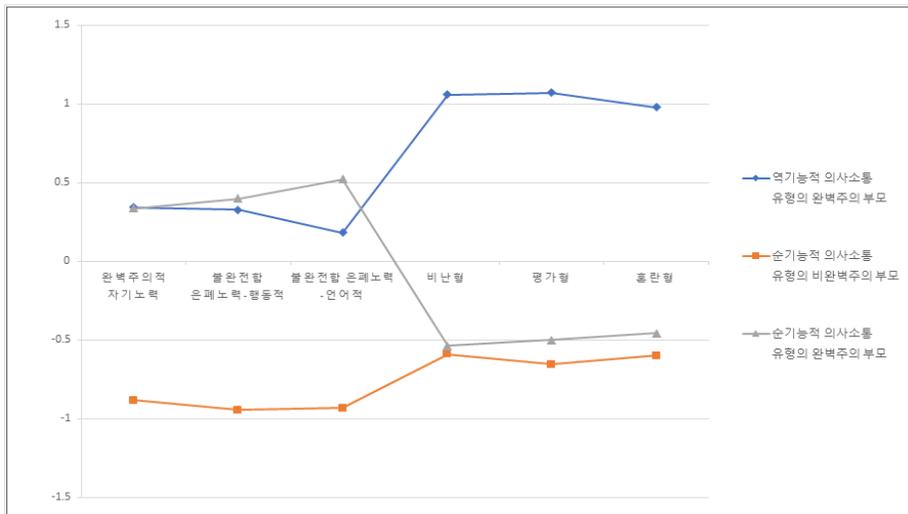
2.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따른 군집 유형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따라 어떠한 군집이 형성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나타난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상의 계수 변화와 덴드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3개의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나타난 군집별 최종 중심점을 통해 각 군집 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며, 각 군집에 할당되는 개체 수가 비슷하고 각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3개로 군집의 수를 확정하였다. 군집 1은 109명(34.49%), 군집 2는 88명(27.85%), 군집 3은 119명(37.6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군집별 특징을 파악하고 군집을 명명하기 위해 표 2에 각 군집별로 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각 군집별로 차이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1을 제시하였다.

<표 2> 최종 군집별 중심점 (N=316)

군집 변인		군집 1 (n=109)	군집 2 (n=88)	군집 3 (n=119)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344	-.883	.338
	불완전함 은폐노력 -행동적	.328	-.945	.398
	불완전함 은폐노력 -언어적	.183	-.930	.521
역기능적 의사소통	비난형	1.061	-.589	-.537
	평가형	1.073	-.654	-.500
	혼란형	.980	-.598	-.455

군집 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M=0, SD=1



<그림 1> 군집 프로파일

그림 1에는 군집별로 표준화된 점수를 이용하여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프로파일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 각 군집별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성 및 군집명은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하위요인인 세 가지 변인의 특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주로 사용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특징을 나

타내는 부모 집단을 ‘높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완벽주의 부모’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특성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사용 수준이 낮은 집단이다. 이들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하위변인의 수준과 비난형, 평가형의 의사소통의 사용 또한 낮은 집단이므로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비완벽주의 부모’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은 높지만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집단이다. 이들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하위변인의 수준은 모두 높게 나타나지만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수준은 낮은 집단이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부모 집단을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완벽주의 부모’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 군집 유형별 자녀의 심리적 특성 차이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모와 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구성된 3개의 군집들이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치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3개의 군집유형을 독립변인으로, 두 변인(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치심)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군집 간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치심이 .00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치심의 하위변인을 표준 점수로 환산하여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2, 그림 3과 같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각 집단 별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세 군집이며, 종속변인은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수치심의 하위변인들로 설정하였다. 군집 유형에 따른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치심의 평균·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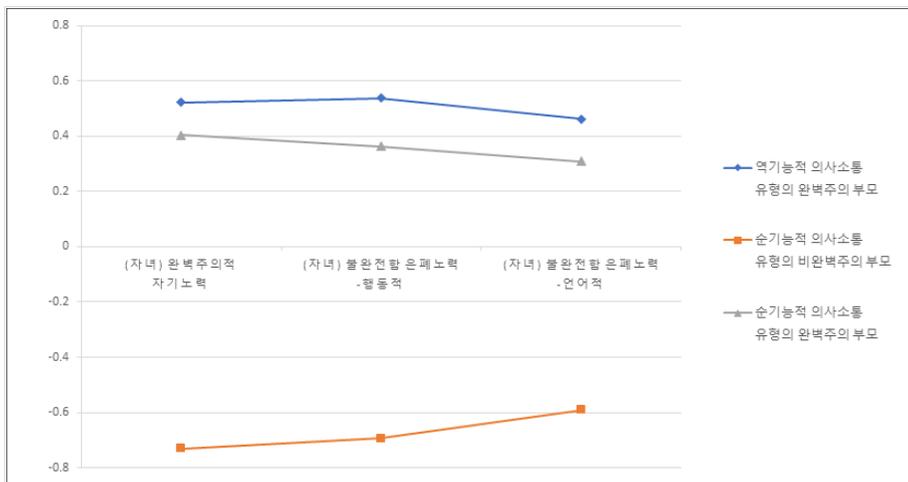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의 세 하위변인 모두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완벽주의 부모’ 집단(군집 1)과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완벽주의 부모’ 집단(군집 3)이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비완벽주의 부모' 집단(군집 2)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이는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부모와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기능적/역기능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녀의 수치심은 각 하위요인 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부적절감의 경우, 각 집단별로 그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완벽주의 부모' 집단(군집 1)이 가장 높았고,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완벽주의 부모' 집단(군집 3)이 뒤를 이었으며, 그 다음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비완벽주의 부모' 집단(군집 2)의 순서로 차이가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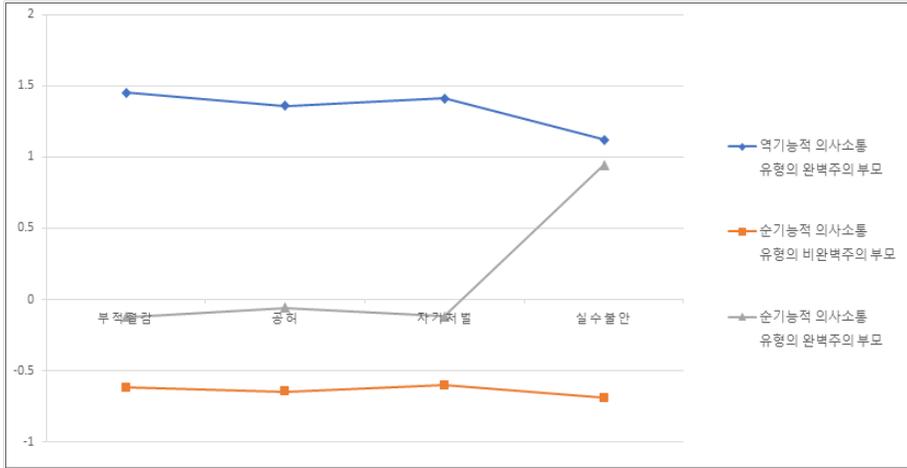
셋째, 공허와 자기처벌의 경우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완벽주의 부모' 집단(군집 1)이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분류된 다른 두 집단(군집 2, 3)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넷째, 실수불안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과 동일하게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완벽주의 부모' 집단(군집 1)과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완벽주의 부모' 집단(군집 3)이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비완벽주의 부모' 집단(군집 2)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그림 2> 군집별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표준점수 비교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의사소통에 따른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수치심의 차이 15



<그림 3> 군집별 자녀의 수치심의 표준점수 비교

<표 3> 군집유형별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치심에 대한 차이 검증 (N=316)

종속변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F	사후검증 (Scheffe)	
	(n=109)	(n=88)	(n=119)			
	M(SD)	M(SD)	M(SD)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4.12 (1.01)	3.37 (.99)	4.10 (.90)	18.55***	1,3>2
	불완전함 은폐노력 - 행동적	4.96 (.99)	4.38 (.89)	5.11 (.86)	17.17***	1,3>2
	불완전함 은폐노력 - 언어적	4.13 (.84)	3.41 (.92)	4.27 (.91)	26.38***	1,3>2
수치심	부적절감	2.35 (.77)	1.80 (.57)	2.03 (.56)	18.13***	1>3>2
	공허	2.64 (.94)	1.88 (.79)	1.99 (.76)	25.57***	1>2,3
	자기처벌	2.52 (.77)	1.89 (.60)	2.08 (.63)	23.50***	1>2,3
	실수불안	3.33 (.72)	2.86 (.74)	3.16 (.71)	10.68***	1,3>2

***p<.001

IV. 논의

1.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조합에 따른 하위집단을 확인하고, 형성된 하위집단 간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치심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 간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고($r=.13\sim.51, p<.05$),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간에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r=.18\sim.59, p<.001$). 이는 부모의 완벽주의가 자녀의 완벽주의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연구들(Cook & Kearney, 2009; Flett & Hewitt, 2002, Frost, 1991)과 같은 맥락으로, 기존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뿐만 아니라 완벽주의 자기제시도 부모의 성향과 상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특히 하위요인 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즉,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비난형’과 ‘혼란형’은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상관이 있었다($r=.15, p<.01$). 이는 부모가 자녀를 비난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자녀의 완벽주의적 사고가 발달한다는 기존의 연구(Barrow & Moore, 1983)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불완전함을 행동이나 언어적으로 은폐하려는 노력은 부모의 비난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비난적이고 혼란스러운 방식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할수록 자녀가 완벽주의적으로 노력하는 것과는 상관이 높으나, 기존의 특성적 완벽주의와 달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가진 불완전함을 은폐하려는 특징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평가형’은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과 상관이 있었다($r=.15\sim.18, p<.01$).

한편,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녀의 수치심 간 유의미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에 대한 기대와 완벽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수치심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남기숙, 2008; Wurmser, 1981)와, 어머니의 과잉 기대가 자녀의 수치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박윤선, 2007; 이태영, 심혜숙, 2010)를 바탕으로 부모가 완벽주의의 모델로서 행동할 때, 자녀에게 그러한 기대를 나타낼 때 자녀는 그 과정에서 수치심을 내면화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수치심 간 모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23\sim.45, p<.001$). 이는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역기능적 경험에 의해 수치심이 내면화된다는 연구(Clair, 1998)와 부모의 학대, 계속적인 비난이 아동의 수치심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Lewis, 1992)와 일맥상통한다. 자녀의 수치심 형성에 있어 부모의 비난, 평가, 혼란형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모두 하위요인들 간에 차이가 없이 동일한 성질로 나타나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군집이 형성되었다. 군집별로 나타난 프로파일 양상에 기초하여 추론한 각 군집의 특성과 군집별로 나타난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치심에 차이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요인 별로 나타난 양상을 살펴보면, 세 하위요인이 모두 높거나(군집 1, 3), 모두 낮은(군집 2) 집단으로 나뉘었다.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요인 모두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집단(군집 1)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요인 모두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두 집단(군집 2, 3)으로 분류되었다. 각 군집별 군집 명과 특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완벽주의 부모’ 집단으로,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하위요인과,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세 하위요인 수준이 모두 높다. 군집 1(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완벽주의 부모 집단)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요인들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 집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특성을 설명한 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집 1에 속하는 부모들은 실수를 두려워하고 비판에 예민하며(Horney, 1950),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고(Weisinger & Lobsenz, 1981) 완벽하지 않다고 지각되는 모습은 드러내기 어려워하는(하정희, 2011; Hewitt et al., 2003) 특성을 모두 지닌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 자기의 약점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비난하고, 평가하며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부모를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며 자라난 자녀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박혜선, 2016; 이은경, 2011). 본 연구에서 이러한 부모 집단에 속하는 자녀들에게서 나타난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수치심은 이들이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내사하고 높은 수치심과 다양한 부적응적, 심리적 문제들을 갖는 집단임을 추측할 수 있다.

군집 2는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비완벽주의 부모’ 집단으로,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하위요인과,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세 하위요인 수준이 모두 낮다. 군집 2는 세 집단들 중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가장 낮은 부모집단이다. 군집 1과 반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자녀의 역기능적 자기제시와 수치심의 하위변인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집단의 부모는 비완벽적이며 보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기능적 의사소통은 메시지의 전달방식이나 전달과정이 분명하고 상호의사소통을 통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기능적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이기연, 홍상욱, 2014)는 선행연구에 따라 군집 2의 자녀들은 부모를 비교적 기능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치심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집단의 자녀들은 신자은(2002)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가치를 부모에게 표현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특성을 지님을 추측할 수 있다.

군집 3은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완벽주의 부모’ 집단으로,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하위요인 수준은 높고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세 하위요인 수준은 모두 낮다. 이들은 군집 1과 비교하여 보면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부분은 같으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은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은 부모의 완벽주의 성향은 높으나 그것을 자녀에게 비난, 평가 등의 부정적인 방식으로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군집 3은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수치심의 하위요인인 ‘실수불안’에는 군집 1과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는 역기능적 의사소통보다 부모의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완벽주의적 성격이 자녀의 완벽주의적 성격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김은아, 1997)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이 집단의 특성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았을 때,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형성에는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영향이 상당함을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특성별로 분류된 집단 별로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치심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각 집단 사이에 모든 하위요인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집단(군집 1, 3)이 그렇지 않은 집단(군집 2)보다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하위요인과 수치심의 '실수불안'이 높다. 다음으로,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군집 1)은 그렇지 않은 집단(군집 2, 3)보다 자녀의 수치심의 하위요인인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이 높다. 부모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을 때, 또 동시에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할 때 자녀의 수치심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의 수치심의 하위요인 중 '부적절감'에 대해서는 부모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으면서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할 때는 집단(군집 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모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높으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은 낮은 집단(군집 3)이 높으며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낮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수준도 낮은 집단(군집 2)이 그 뒤를 이어 각 군집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자녀의 수치심의 하위요인 중 완벽주의적 성향과 일맥상통하는 '실수불안'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하위요인은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과 관계없이 부모의 높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자녀의 수치심의 다른 세 하위요인인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은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대학생 자녀들은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집단이며,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의 높고, 낮음과는 관련이 없다. 수치심이 높은 대학생 자녀들은 '실수불안'의 요인을 제외하고는 수치심 성격의 형성에 있

어서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가 지니는 이론적, 실제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라는 특성의 복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와 공존하는 변인에 대한 다양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는 완벽주의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변인의 특성이나 적응, 부적응의 차이만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신자은, 2002)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두 변인의 조합으로 형성된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의 완벽주의의 발달과 관련하여 부모의 완벽주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해외가 주를 이루었고, 국내에서는 거의 없었다(김은아, 1997; Cook & Kearney, 2014, Frost, Lahart, & Rosenblate, 1990; 1991). 특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발달과 관련하여 부모의 성격적 측면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형성에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가장 크게 작용함이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녀가 자신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이해할 때, 부모의 성격과 양육특성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기술된 집단별 특성을 토대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을 나눌 수 있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조합을 통해 3개의 군집이 형성되었고, 세 군집에 따라 자녀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하여 밝힘으로써 자녀의 성격,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상담 개입 및 목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정서인 수치심의 형성에 있어서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특성적 완벽주의와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진 수치심에 다양한 측면의 설명을 추가하였다. 또한 수치심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수치심의 많은 부적응적 특성들과 관련하여 상담적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통해

기능적인 방향으로의 모색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및 경상도 대구에 위치한 대학의 학생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군집분석의 결과는 특히 표본에 민감한 특성이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다른 대학생 집단에서도 동일한 군집이 형성되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부모의 특성도 자녀가 지각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해당 변인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수준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수치심의 차이를 초래하는 변인으로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심리적 통제(하정희, 2017), 양육태도(장지은, 김춘경, 2015), 부모의 정신병리(Cook & Kearney, 2009) 등이 있고, 수치심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양육태도(박윤선, 채규만, 2010), 부부갈등(강선모, 2014) 등이 있다. 추후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수치심에 대하여 또 다른 변인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분류된 집단에서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수치심에 차이가 나타남을 살펴보았으나, 군집별로 성별의 분포는 밝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이 차이가 있다는 기존 연구(Cook & Kearney, 2009)에 기초하여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수치심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밝힌다면 성별에 따른 대학생 자녀의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문희(2007). **현대사회와 아동: 심리학적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강선모(2014).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화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4), 257-283.
- 권석만(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30(1), 38-63.
- 김경화(1989).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재(2004). 자기제시 동기와 대인 간 평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677-695.
- 김옥희, 박미하(2011). 교류분석의 의사거래 유형과 Satir의 의사소통 유형 비교. **교류분석연구**, 2(1), 35-54.
- 김정미(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정서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6(10), 205-225.
- 김태완(201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1(3), 23-36.
- 김현정, 손정락(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361.
- 김현주(2010). 사회적 지지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빈곤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12), 211-233.
- 남기숙(2008). **수치심, 죄책감 경험과 대처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윤선, 채규만(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133-147.
- 박혜선(2016).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숙, 김진숙(2007). 상담일반: 사회적 행동의 구조 분석(SASB) 모형을 통해 본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이미지 및 대인패턴. **상담학연구**, 8(3),

859-875.

- 서영숙, 김진숙(2009). 부모의 양육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661-682.
- 신자은(200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완벽주의 및 정서표현성향 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선경, 송원영(2018). 남자고등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2), 277-287.
- 이기연, 홍상욱(201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1(1), 79-104.
- 이동귀, 서해나(2010). 상담일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성향이 높은 대학생과 낮은 대학생의 특성비교. **상담학연구**, 11(1), 91-110.
- 이문선, 이동훈(2014).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973-992.
- 이원경(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만족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17, 74-90.
- 이은경(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조성호(2011).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인정욕구, 자기강화, 성공-실패경험의 매개역할. **학생생활상담**, 29, 35-58.
- 이태영, 심혜숙(2010).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행동과 부부갈등이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58(2), 103-126.
- 장지은, 김춘경(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완벽주의 간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31(4), 285-308.
- 정남열(2007).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청년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남현동에 위치한 H교회를 중심으로**.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해숙, 정남운(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2), 89-107.
- 최상진, 김기범(2000). 체면(體面)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 성격, 14(1), 185-202.
- 하정희(2011).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방어유형과 우울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21-941.
- 하정희(2011).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PSPS-K) 의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121-1140.
- 하정희(2012).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이 자기구실 만들기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2), 705-724.
- 하정희(2017).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6), 105-126.
- Adler, A.(1927). *Understanding Human Nature*. (WB Wolf, trans.) New York, Fawcett Premier. Original work published.
- Alden, L. E., Bieling, P. J., & Wallace, S. T.(1994). Perfectionism in an interpersonal context: A self-regulation analysis of dysphoria and social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4), 297-316.
- Barrow, J. C. & Moore, C. A.(1983). Group interventions with perfectionistic thinking.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1(10), 612-615.
- Bradshaw, J.(1988). *Healing the Shame That Bind You*. Florida, Health Communications Incorporation.
- Burns, D. D.(1980). The perfectionist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34-52.
- Chang, E. C.(2002). Examining the link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Social Problem Solving as a Buff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581-595.
- Claesson, K. & Sohlberg, S.(2002). Internalized shame and early interactions characterized by indifference, abandonment and rejection: Replicated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 Practice*, 9(4), 277-284.
- Clark, S. & Coker, S.(2009). Perfectionism, self-criticism and maternal criticism: A study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4), 321-325.
- Clair, Michael St.(1998).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대상관계이론과 중**

주.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Cook, L. C. & Kearney, C. A.(2009). Parent and youth perfectionism and internalizing psycho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3)*, 325–330.
- Cook, L. C. & Kearney, C. A.(2014). Parent perfectionism and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child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0*, 1–6.
- Fisak, B. & Grills–Taquechel, A. E.(2007). Parental modeling, reinforcement, and information transfer: Risk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child anxiety.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0(3)*, 213–231.
- Flett, G. L. & Hewitt, P. L.(2002). Perfectionism and maladjustment: An overview of theoretical, definitional, and treatment issues. In G. L. Flett & P. L. Hewitt(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pp. 5–1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lett, G. L., Madorsky, D., Hewitt, P. L., & Heisel, M. J.(2002). Perfectionism cognitions, ru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0(1)*, 33–47.
- Flett, G. L., Hewitt, P. L., Oliver, J. M., & Macdonald, S.(2002). Perfectionism in children and their par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89–132).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rost, R. O., Lahart, C. M., & Rosenblate, R.(1990). The development of perfectionism: A Study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Frost, R. O., Lahart, C. M., & Rosenblate, R.(1991). The development of perfectionism: A study of daughters and their par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5(6)*, 469–489.
- Greenspan, T. S.(2000). Healthy perfectionism is an oxymoron.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11(4)*, 197–208.
- Hair, J. F. & Black, W. C.(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witt, P. L., Blasberg, J. S., Flett, G. L., Sherry, S. B., Medjuck, J., Caelian, C., & Papsdorf, M.(2007).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Validation of a Measur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Hewitt, P. L.,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 W., ... & Stein, M. B.(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 Horney, K.(1950). *The Collected Works of Karen Horney: Self Analysis. Neurosis and Human Growth* (Vol. 2). WW Norton.
- Hutchinson, A. J. & Yates, G. C.(2008). Maternal goal factors in adaptive and maladaptive childhood perfectionism. *Educational Psychology, 28(7)*, 795–808.
- Kauf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London: Routled.
- Leary, M. R. & Allen, A. B.(2011). Self-presentational persona: Simultaneous management of multiple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5)*, 1033.
- Leary, M. R. & Kowalski, R. M.(1995).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94–112.
- Lewis, H. B.(1992). *Shame : The exposed self*. New York: Free Press.
- Rice, K. G., Tucker, C. M., & Desmond, F. F.(2008).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mong low-income chronically ill African American and white adolescents and their maternal par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15(3)*, 171–181.
- McArdle, S. & Duda, J. L.(2008). Exploring the Etiology of Perfectionism and Perceptions of Self-worth in Young Athletes. *Social Development, 17(4)*, 980–997.
- Satir, V.(1983). *Conjoint Family Therapy*.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chlenker, B. R. & Leary, M. R.(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
- Sherry, S. B., Hewitt, P. L., Flett, G. L., Lee–Baggley, D. L., & Hall, P. A.(2007). Trait perfectionism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personality 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3)*, 477–490.
- Stoeber, J., Otto, K., & Dalbert, C.(2009). Perfectionism and the Big Five: Conscientiousness predicts longitudinal increases in self–oriented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4)*, 363–368.
- Tangney, J. P.(2002). Perfectionism and the self–conscious emotions: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69–478.
- Weisinger, H. & Lobsenz, N.(1981). *Nobody's Perfect*. New York: Warner Books.
- Wheeler, N. J.(2000). *Saving Strangers: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UP Oxford.
- Wright, K. & Gudjonsson, G. H.(2007). The development of a scale for measuring offence–related feelings of shame and guilt.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18(3)*, 307–316.
- Wurmser, L.(1981). *The Mask of Sham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Differences i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hame in University Students by Parents'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Communication

Cho, In–Kyong · Ha, Jung–Hee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nderstanding how university students'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hame differ based on group clustering by parents'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 surveys targeting 323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in Seoul, or Gyeonggi Province, or Daegu were conducted to collect data and a total of 316 surveys, excluding 7 surveys, were analyz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clustering analysis was conducted. The following a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Three groups appeared according to parents'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respective characteristics o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s.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hame of respective groups. This study attempted exploration of coexisting variables after focusing on the complex and interactive asp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it is beneficial in objectively understanding children's perfectionistic tendencies since it identified the effects of parents' character and nurturing characteristics on individuals. Also, this study can become the basic data for setting intervention and goals in counseling based on the information regarding characteristics of respective groups.

*** Key words:** university student, parents,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hame